

국토부·국방부·美軍, 군산공항 국제선 허용 협의 광주·무안공항, 항공수요 분산 '비상'

호남권 '공항 삼각벨트' 형성엔 활성화 걸림돌

전북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에 비상이 걸렸다. 호남권에 광주와 무안, 군산공항을 축으로 하는 '공항 삼각벨트'가 형성되면 항공수요가 분산, 공항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3일 광주지역 관광업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미군 측은 군산공항에 국제선 취항을 허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1992년 채택된 '군산 공군기지의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각서'에 따라 군산공항에는 국내선에 한해 하루 10회만 운항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국제선 취항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양측은 최근 국제선 취항 문제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신규과제로 정식 채택해 이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이달 말께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역 전문가들은 '호남권 내에 광주공항과 무안공항, 군산공항 등 3개 공항이 들어서 본격 가동될 경우 항공수요가 분산, 지역 공항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산공항에 국제선이 새로 취항하게 되면 전북·충청권 지역민들이 군산공항을 이용하게 돼 광주·전남으로서는 다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공항은 1주일에 3000편의 국제선이 뜨는 반면

무안공항은 6편밖에 뜨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군산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하면 무안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의 의미가 퇴색하고, 광주공항 국내선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국제선 취항이 승인되면 공항 여객터미널 등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4km 길이의 활주로를 확장하는 한편 항공수요 확보를 위해 여행사와 항공사 등에 각종 인센티브를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재고 넘치는데 쌀값 급등 '기현상'

햅쌀 부족 탓... 80kg당 14만6960원 전년비 5.1% 올라

재고 쌀이 넘쳐 나는데도 산지 쌀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 비축(재고) 쌀이 1994년 이후 최대 규모인 150만톤에 달하지만 최근 산지에서는 지난해 수확한 햅쌀이 부족해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5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kg당 14만696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1%, 수확기(10~12월) 대비 6.9% 상승했다. 통계청 발표 기준, 전남지역 산지 쌀값도 지난달 25일 현재 80kg에 14만

5000원으로 1년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쌀 수확량이 429만 5000t으로 전년 491만6000t에 비해 62만1000t이 줄어든데다, 도정수율(벼의 무게에 대한 도정된 백미의 백분율)이 평년의 72%보다 3% 포인트 낮은 69%에 불과한 것이 1차적 원인이다. 여기에 RPC(미곡종합처리장)의 벼 재고량 감소와 쌀값이 오를 것을 기대한 일부 대농(大農)과 농협이 벼를 움켜쥐면서 햅쌀 품귀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담양군농협 RPC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4만톤대 수준이던 원료곡도 지난달 25일 현재 5만3000원으로 치

솟았고, 21일 이후에는 더 오를 전망"이라며 "원료곡을 살 수도, 쌀을 매입할 수도 없어 진퇴양난"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6만 1000t을 RPC 등 산지 가공·유통업체에 판매하기로 하고 향후 쌀값이 과거 5년간 분기별 평균 가격보다 3% 이상 상승할 경우 공매방식으로 판매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말 정부의 쌀 재고는 153만t으로 추정돼 비상사태 대비 비축물량인 100만t을 제외해도 53만t의 여유재고가 있다"면서 "정부 비축 쌀 판매를 통해 산지 쌀 유통업체의 원료곡 부족문제가 해결되면 쌀값의 급격한 변동요인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무등산 순환버스 개통 무등산 순환버스 개통식이 12일 광주 중심사 입구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매주 토·일요일 하루 6차례 운행되는 무등산 순환버스는 시범적으로 무등길 15길의 시작점인 광주역(북측)을 출발해 원효사, 증심사, 녹동역(소태역), 화순 신기교차로, 큰재, 안양산휴양림 등 왕복 131km를 운행한다.

목포 북항에 노을 광장·수변 데크

목포항만청, 100억 투입 해양 친수 문화공간으로

목포 북항에 노을 광장과 수변 데크가 설치되는 등 해양 친수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13일 목포의 관문인 북항을 향만 기반시설 위주 개발에서 이제는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1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항만청은 이를 위해 축구 경기장 4개 규모의 다양한 해양 친수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 실시할 공역에 착수했다.

이 곳에는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 풍경을 상징하는 노을광장과 건강과 휴식을 위한 녹지 및 산책로, 지역행사·야외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위한 다목적 잔디광장이 들어선다.

또 지역의 역사와 예술·문화 창조공간인 야외전시장, 바다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친수형 수변 데크 등이 조성된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대교와 해양수산 복합센터, 씨푸드타운 등과 더불어 다양한 해양관광 인프라가 구축된다"면서 "북항이 연안어업 지원항 뿐만 아니라 해양항만 관광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게 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항만청은 1984년부터 25년에 걸쳐 2115억원을 투자해 목포북항 개발사업을 모두 완공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북항내 소형 어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대규모 맞춤형 계류시설인 부안교시설을 완공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광주 사직공원 동물 주제 예술작품 전시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시아 ARTZOO' 공모전

조형예술 분야를 비롯해 정크아트, 미디어아트, 팝아트 등 장르에 제한이 없다.

체형 프로그램이 가미된 작품은 가산점이 부여되며 2인 이상의 합동 작품도 응모 가능하다.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진행되며 작품 접수도 광주시와 중국 베이징 두 곳에서 이뤄진다.

다음달 15일부터 27일까지 접수를 하며 5월 5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에는 광주시장과 1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금상에는 700만원이, 은상에는 3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수상작은 5월 5~8일 'Pre ARTZOO 2011' 축제에 전시되며 일부 작품은 사직공원에 설치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영암군, 보육시설까지 무상급식

전국 최초... 46억 들여 유치원·초·중·고교 등 100곳

영암군이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초·중·고교는 물론 보육시설에서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영암군은 이달부터 46억원을 투입해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지만, 보육시설과 유치원생 급식까지 챙겨 주는 곳은 영암군이 처음이다.

영암군의 이번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100여 개소 9500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성장기 아동과 학생들을 위해 지역 농민들이 손수 친환경 농산물로 재배한 농산물을 식단을 구성, 건전한 심신 발달은 물론 농가소득 창출에도 기여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군과 학부모, 주민들의 의지와 열정으로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보육시설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성기자 moon@

2011 제주 봄·여름 골프투어 사은행사!! 기간:2011년 6월 30일까지

이제 제주도/해외 골프여행은 믿을 수 있는 **골프전문가 스피드골프**와 함께 하시면 편안합니다. (태국, 필리핀, 중국, 일본 전문)

직장인을 위한 매주 일요일 출발 1박2일 골프

광주왕복항공, 4인 출발기준

- 해비치 리조트 32평 (4인1실) 45H
- 해비치CC 18홀 + 해비치CC 27홀 ₩ 349,000원
- 부영호텔 30평 (4인1실) 36H
- 중문CC 18홀 + 부영CC 18홀 ₩ 359,000원
- 관광 호텔 (2인1실) 36H
- 에버리스CC 18홀 + 아덴힐CC 18홀 ₩ 389,000원
- 네이버후드 호텔 (2인1실) 36H
- 제피로스CC 18홀 + 세인트포CC 18홀 ₩ 409,000원

골프 매니아를 위한 골프텔 상품

광주 왕복항공, 주중 4인 출발기준

- 해비치 리조트 32평 (4인1실) 36H
- 해비치CC 18홀 + 해비치CC 18홀 ₩ 309,000원
- 사이프러스 골프텔 38평 (4인1실) 36H
- 더글래스CC 18홀 + 사이프러스CC 18홀 ₩ 369,000원
- 라온 골프텔 37평(4인1실) 36H
- 스카이힐CC 18홀 + 라온CC 18홀 ₩ 379,000원
- 에버리스 골프텔 54평(4인1실) 45H
- 아덴힐CC 18홀 + 에버리스CC 27홀 ₩ 389,000원

고품격 1박2일 신규명문CC 18홀 * 2회

광주 왕복항공, 4인 출발기준

	주중(월~목)	금/일	토
관광호텔	₩ 419,000	₩ 489,000	₩ 529,000
준특급호텔	₩ 419,000	₩ 499,000	₩ 539,000
라마다/그랜드호텔	₩ 469,000	₩ 569,000	₩ 599,000
롯데/신라호텔	₩ 509,000	₩ 589,000	₩ 619,000

★신규명문CC : 세인트포, 블랙스톤, 아덴힐, 핀크스, 테디밸리, 우리들, 엘리시안, 더글래스, 라온 등

★명문CC : 해비치, 사이프러스, 제피로스, 스카이힐, 에버리스, 부영, 중문, 라헨스, 오라, 한라산 등

★전상품 호텔&골프장 선택변경 가능. ★2박3일 골프투어 가능& 관광패키지, 렌트자유여행 가능. ★장흥 오렌지호 출발 1박2일 골프 투어 가능 36홀 ₩289,000~

◆공통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그린피, 단독수송차량, 숙박, 여행자보험
◆공통 불포함사항 : 전동카, 캐디팁, 식사, 기사팁 ★유가할증료

아시아항공 KOREANAIR 최우수 대리점 365일 항공 & 선박좌석 확보 예약센터 스피드골프투어 062)382-8201